

한화L&C, 북미 인테리어 자재 공략

마감재 · 인조대리석 판매 강화 ... 7월 캐나다 소재 마감재 공장 완공

한화L&C가 북미 인테리어 자재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.

한화L&C는 5월1-3일 미국 애틀랜타 시티 조지아 월드 컨그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<2009 Kitchen & Bath Industry Show>에 참가한다고 4월27일 발표했다.

KBIS는 미국 NKBA(National Kitchen & Bath Association)가 1982년부터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방과 욕실용품 전문 전시회로 2009년에는 9만m² 규모의 전시장에 약 6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한화L&C는 대형부스를 설치해 자연소재의 천연 마감재인 <칸스톤>과 인조대리석 <하넥스>의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. 또한, 바닥마감재 <미라톤> 등 다양한 첨단 인테리어 자재들을 전시해 미국시장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.

특히, <칸스톤>은 프리미엄 실내장식 자재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현지 생산할 계획으로 7월 캐나다 Ontario에 <칸스톤> 생산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27>